



안전 외길 40년, 무재해 15배 달성

취재 | 최종덕 기자

“화재로부터 사람을 살린다”라는 기업이념으로 화재안전분야 외길 40년을 걸어온 금성방재공업은 기업의 가치 중 근로자의 안전보건문제를 최선으로 여기면서 1991년 1월부터 시작된 무재해는 2007년 10월 무재해 15배라는 금자탑을 세우고 무재해 20배를 향하고 있다.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북부지회와 함께 하고 있는 금성방재공업의 안전 속으로 들어가 본다.

머리말

금성방재공업은 화재안전분야의 제품을 생산하는 안전 전문회사이다. 주 생산품은 화재수신기를 비롯해서 화재감지기, 유도등, 발신기, 비상콘센트, 자동화재속보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다. 대부분의 제품 생산공정은 외부에서 이루어지고, 내부에서는 조립과 검사, 시험 등의 업무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완성된 제품을 현장에 설치하는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내부에는 위험공정은 많지 않으나 수공구를 많이 사용하고, 반복된 동작이 이루어지다보니 수공구에 의한 사고위험과 근골격계질환 위험이 있다. 그리고 생산 제품을 설치하는 곳 대부분이 건설현장인 관계로 건설현장 자체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무재해 15배를 달성한 금성방재공업의 안전은 저력이 있다.

안전한 작업장 만들기

금성방재공업의 일터는 깨끗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확실한 구획선, 잘 정돈된 작업장에서는 어디 하나 흐트러짐이 없다.

이유는 있었다.

오래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5C 운동의 일환으로 작업장 안전통로 확보와 함께 경고표시가 확실했다. 그리고 적재대는 붕괴사고 예방을 위해 고정식 강철빔으로 전체 교체하였다.

바닥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장을 찾은 내방객의 안전을 위해 계단 및 주통로에 미끄럼방지테이프와 경고표지는 필수며, 지면보다 높은 통로의 추락방지용 안전난간대는 안전성, 시각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하였다. 이밖에도 유리 문틈 손가락 협착 예방을 위해 안전고무판 부착, 납땀 작업대에 설치된 국소배기장치는 흡입력을 1.01m/s에서 1.55m/s로 향상된

국소배기장치로 전면 교체됨은 이곳의 섬세한 안전과 안전에 있어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경영주의 의지를 볼 수 있다.

특히, 반복되는 동작과 조립공정시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올 수 있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아침, 점심으로 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 예방 체조는 이미 정착되어 있고, 모든 작업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근골격계질환 예방 의자를 전면 지급하였다.

이러한 세심하면서 적극적인 투자가 오늘의 무재해 금성방재공업을 이끈 뿌리가 아닌가 싶다.

자율안전, 근로자 의식에서 자리 잡아

이른 아침부터 사업장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가 있다.

“안전하십니까?”

매일 업무 시작전 작업장 위험요소를 서로 점검하기 위해 시작된 “안전하십니까?”는 안전보건 슬로건으로 자리 잡으면서 아침인사로 시작되는 금성방재공업의 안전문화로 자리잡았다.

이외에도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은 다양하나 그 중 눈에 띄는 것이 수시로 시행되고 있는 “안전표어 공모전”과 “무재해기록 전광판 설치”, “우수사원에 대한 표창”이 있고, 안전교육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문적인 지식 전달과 실습을 통한 효과적인 안전교육을 볼 수 있다.

금성방재공업에 뒤지지 않는 협력사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온상이라고 말하는 중소기업, 금성방재공업도 근로자 90여명으로 중소기업이나 안전에 있어서는 무재해 15배 달성과,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산업재해표창장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이상이다.

여기서 더욱 놀란만한 것은 금성방재공업과 인연을 맺고 있는 협력사의 안전활동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는 금성방재공업이 자사뿐만 아니라 협력사에도 안전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있다.

금성방재공업의 안전 노하우를 교육과 매뉴얼을 통해 협력사에게 전달하고,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에 표창을 하는 것, 또한 화재안전전문기업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협력사 임직원을 비롯해 지역 초등학교 등까지 교육 및 화재안전교육교재를 보급하고 있다.

금성방재공업은 오늘의 무재해 목표달성에 만족하지 않는다. 무자년에는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북부지회와 함께 근로자가 참여하는 안전활동으로 위협예지훈련을 정착시킬 것이

며, 무재해 목표 16배 또한 차질 없이 달성한다는 각오다.

오늘도 안전의 동반자로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북부지회와 함께하고 있는 금성방재공업은 자사의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사회 안전을 기원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인다. 

무사고의 2008년을 기원합니다



〈김태호 대표이사〉

우리 금성방재공업에는 근로자에게 유해를 가할 수 있는 기계구는 도입하지 않습니다. 20년 이전부터 위험 제조공정을 제조 전문회사에 일임함으로써 사업장에 위험성을 근본적으로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금성방재공업은 무재해운동을 하기 이전부터 사실상 시작되었고, 무재해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만의 안전활동이 자리잡았으며, 이번 무재해 목표 15배라는 금자탑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무재해 15배는 어느 누구 한사람이 잘해서 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금성방재공업 가족 모두가 뜻이 모여져 이룩된 결과입니다.

저는 평소 주간, 월간회의 뿐만 아니라 시무식, 종무식에서도 안전을 강조합니다. 안전사고는 근로자 당사자만의 일이 아니며,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 자식, 그리고 동료와 나아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까지 물적, 정신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주는 엄청난 사고입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먼저 경영주가 도의적인 차원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앞장서야 할 것이고, 근로자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라도 안전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금성방재공업은 오늘의 무재해 15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무자년인 2008년에 무재해 16배를 디딤돌 삼아 무재해 20배 달성까지 지속시킬 것을 다짐합니다.

한 순간의 사고는 10년 넘게 공들여 쌓아온 금자탑을 무너트릴 수 있기에 우리 가족 모두는 2008년도 무재해로 보낼 것을 다짐해 봅니다.

2008년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에게게는 더욱 할 일이 많아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항상 안전이 우선이 되어 무사고의 한해를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며,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분들 또한 안전한 한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